

자투리 시간에 정리하기 좋은 고전시가 빈출 포인트.

제작 : 조남희(주간 리트 저자)

(실전에서 1순위는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)

1. 자연 친화 & 예찬

⇒ 자연에 대한 애정, 예찬을 드러냄.

1-1

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 / 자연을 예찬

- + 구체적 장소가 제시되지 않고 그냥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있음.
- + 장소 불문 자연물에 대한 예찬(매화사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)

※ 화자가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다가 속세를 걱정(우국충정)하거나 지향&미련(출세 등)하는 경우 주의
(주로 연시조에서 자연 좋다 하다가, 나라 걱정 혹은 출세 지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음. 이 경우 화자의 내적 갈등이 보일 가능성 높음. 이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지 안 될지는 모름. 현장에서 맥락에 의거해 판단해야 함. 애초에 연시조면 작품 종결에서는 갈등이 해소됐어도 지문에서는 안 됐을 수 있음. 즉 어떤 부분을 가져오냐에 따라 달라짐. 이는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 영역)

1-2

화자가 속세에 있지만, 자연에 대한 지향을 보이거나,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.

- +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함.
- + 자연을 지향하는 화자가 자신의 이상이 아닌 속세에 있어 그로 인한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음.

알아두면 좋은 어휘 & 상식

- + 자연과 관련 있는 어휘 : 강호, 산림, 풍월 등.
- +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어휘 : 도롱이, 샷갓, 꽃나물, 보리밥 등.
- + 대체로 자연은 무욕(無慾), 무심(無心), 한가한 경우가 많다.
- + 술은 옛 선비들에게 부정적인 것보다, 흥취를 돋구는 용도로 더 많이 쓰였나보다.
- + '낙시'가 실제 생업이 아닌 여유 등의 관념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.

2. 연군지정, 우국충정

⇒ 말 그대로 임금 또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드러냄.

2-1

그냥 임금 또는 국가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는 작품.

+ 역군은 이샷다~ 등의 표현. 임금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

2-2

유배지에서 쓴 작품

+ 이때 변하지 않는 연군, 우국을 말하며 자신의 '억울함'(간신들의 모함 등)을 이야기하는 경우. 그냥 다 자신의 잘못이라 하는 경우, 말하다 섞이는 경우 등이 있음. 이런 지점은 사실 일치로 나오기 좋으니 체크하면 좋음.

알아두면 좋은 어휘 & 상식

임금을 남성으로, 자신을 여성으로 비유하여 쓰인 작품들도 꽤 많음. 아마 이런 점을 물어보고 싶으면 <보기>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.

3. 사랑 / 애환

⇒ 옛 사람들도 사랑을 했다.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.

+ 주로 사설 시조에서 많이 등장함.

+ 여성들의 문학 규방 가사에서 이런 정서가 자주 등장함.

+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들임. 무난하게 읽으며 사실 일치 등에 주의할 것.

4. 기행 & 연행

⇒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는 방식 / 알팍한 고전 시가 지식(자연 친화 연군 정도만 아는) 경우 많이 힘들어하는 갈래.

+ 앞선 작품들에 비해 전체적 정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.

+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일치에 더욱 신경 써야 함.

(ex. 비로봉에 진짜 오른 것인지, 바라만 본 것인지, 상상한 것인지 등의 낚시 주의.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됨.)

+ 작품에서 대놓고 제시된 정서 표현이 있을 것, 그 정서가 어떤 행위(혹은 대상)에 연결되는 것인지 꼭 확인

+ 장소, 시간, 대상(자연물, 인공물 등) 필히 체크하며 갈 것.

+ 17 수능 연행가, 19 수능 일동장유가 기출 분석(특히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) 빠지게 하면 기행&연행 가사에서 핵심을 느낄 수 있을 것.

5. 풍자적 작품

⇒ 아마 내신 등에서 친숙하게 접해봤을 것.

+ 주로 사설 시조에서 많이 등장(꼭은 아님 정약용의 한시 등에서도 풍자적 작품 있음)

+ 주로 우의적 표현을 활용함(두터비 파리를 물고 등)

+ 크게 어렵지 않은 갈래. 무난하게 읽으며 사실 일치에 주의할 것.

6. 민생을 담은 작품

⇒ 그냥 백성들의 삶(농사하는 등)을 다룬 작품.

+ 이 역시 작품별로 공통된 정서가 뚜렷하진 않음.(진짜 농사 얘기 하거나, 아니면 뭐 다른 얘기 하거나 등등)

+ 농사 얘기한다면,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등은 주의해서 봐두자.

+ 개별적인 사실 일치에 집중.

+ 가난을 노래한 작품들은 화자가 가난을 극복하려 하는지, 체념하는지 등의 정서적 반응도 주의하자.

당부

①

고전시가는 100%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
그렇지만 대표적인 주제들을 알고 있으면, 낯선 작품을 독해하더라도
‘아~ 이거 대충 이 얘기하네~’ 정도의 맥락 파악이 쉬워집니다.
여러분들이 듣는 강의에서도 다 정리된 내용이겠지만,
최소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

②

이 자료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다 듣는다는 전제하에
최대한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편집한 자료입니다.
제목과 같이 컴팩트하게 복기하는 용도(통학 시간, 혼밥, 화장실 등)로
자투리 시간에 **씩 반복해서 볼 자료**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(그래도 있을 거 거의 다 있습니다. ㅎㅎ)

③

학생들이 ‘고전 시가는 연계 되니까~’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
수능 날 은근 고전시가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본인이 고전시가에서 ‘해석 자체’가 일정 수준 이하라는 판단이 드시면
고전시가 정리집(컴팩트하고 좋은 거 많습니다.) 하나 사서
주말에 가볍게 후딱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.

④

점점 더 고전 시가에서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를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.
사실 고전 시가가 아니라 다른 갈래도 다 그렇죠. 21학년도 6월, 9월 모평 고전 시가 문항만
봐도 완전 극단적 사실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(이 기출들은 꼭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. 극
단적 사실일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항들입니다.) 이 점을 명심하셔서, 고전시가 기출
분석을 할 때 선지 판단 시 중요 포인트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
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! / 조남희(주간 리트 저자)